

 <b>주일한국문화원</b>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보도일시	2022.06.0000.			총 2쪽	
배포일시	2022.06.0000.	담당부서	주일한국문화원		
담당자	사업담당 민병욱, 홍보팀 조은경(+81-3-3357-5970) postmaster@koreanculture.jp				

## 日호쿠토시에서 열리는 「길 위의 인문학」 조선의 민예와 산을 사랑한 아사카와 형제의 발자취 소개

주일한국문화원은 일본 속에 한국과 인연이 있는 장소에 대해 강연과 답사를 통해 배우며,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필드워크형식 강연회 ‘길 위의 인문학’ 을 6월 18일(토)에 일본 호쿠토시에서 개최한다.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의 주제는 영화 「길~백자의 사람」으로도 잘 알려진 **아사카와 노리타카·다쿠미 형제의 국경을 초월한 한국 사랑**이다.

아사카와 노리타카·다쿠미 형제는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로 건너가 **조선의 전통문화와 민예를 연구·보존하고 미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식목사업에도 헌신한 한일 우호의 상징적인 인물**로 평가 받고 있다. 또한, 형제의 고향인 야마나시현 호쿠토시는 이들의 업적과 유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1년에 자료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 민간교류는 물론 지자체 간 교류연수도 진행 해오고 있다.

이번 길 위의 인문학에서는 「아사카와 노리타카·타쿠미 형제 자료관」을 비롯하여 형제가 태어난 집터와 묘소에서 히나타 요시히코 관장 (아사카와 노리타카·타쿠미 형제 자료관)과 오자와 류이치 사무국장 (영화 「길~백자의 사람」 제작위원회)의 강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

총 30명을 정원으로 모집을 한 결과, 약 400여명이 신청할 정도로 일본 시민들에게 관심이 높았다. 특히, 신청자 중에는 ▲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아사카와 형제에 대해 알게 되고 책과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한국 망우리에 있는 다쿠미의 묘소에 방문한 적이 있는 70대 여성. ▲딸, 어머니,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참가를 희망하거나 한국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친구와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

한국과 일본시민. ▲취미로 도예를 배우고 있거나 한국도예를 주제로 졸업논문을 쓴 50대 여성 등 다양한 연령층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.

### 〈길 위의 인문학 - 호쿠토시에서 만나는 한국〉

- 행사명: 길 위의 인문학 - 호쿠토시에서 만나는 한국
- 일시: 2022년 6월 18일(토), 13:00~15:30
- 장소: 야마나시현 호쿠토시
- 교통: 한국문화원 집합 후, 대형버스로 이동 (10:30 출발 / 18:00 해산)
- 대상: 정원 30명 (정원 초과 시 추첨)
- 필드워크:
  - 아사카와 노리타카·타쿠미 형제 자료관
  - 아사카와家 묘소
  - 아사카와 노리타카·타쿠미형제 탄생지
- 강연
  - 아사카와 노리타카·타쿠미 형제 자료관 관장 히나타 요시히코
  - 영화 「길~백자의 사람」 제작위원회 사무국장 오자와 류이치
- 주최: 주일한국문화원



	<p>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한국어보급사업팀장 민병욱, 홍보팀장 조은경(+81-3-3357-597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-